

취업 성공 스토리

한국농어촌공사

이동환 /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합격기업 한국농어촌공사/수자원관리

기본스펙 학점 : 4.0 / 토익 : 790점

대학생활

인턴 없음

현장실습 없음

공모전 없음

봉사활동 헌혈 및 지역아동센터 봉사

아르바이트 없음

기타 전남대학교 총장명예학생(PHS)

자격증

전공 토목기사

일반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1급, 한국사능력시험 고급

대학생활 스토리

기숙학교였던 고등학교생활을 하며 대학교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1학년도 마찬가지로 기숙사에 들어가 동기들과 생활하며 매일 솔자리, 봉플 등 즐거운 날만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험기간에는 마냥 놀지 않고 적당히 공부를 하여 성적은 3점대 중후반을 받았습니다. 여름방학에는 국토부의 유량조사사업단에서 유량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 2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토지개량 및 복원 연구실에서 학부생 연구원 활동을 하며 국가 부처의 다양한 기관의 연구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남대학교 총장명예학생(PHS)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기행탐사, 각종 교육, 봉사활동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학부생 연구원 및 PHS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며 바쁜 3학년을 보내고 3학년 겨울방학부터 토목기사 자격증 공부와 컴퓨터활용능력 1급 공부를 병행하며 취업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이 밀리고 공부할 곳도 마땅치 않아 힘들었지만 토목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8월부터 NCS스터디를 통해 공기업 입사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9월부터 다양한 공기업 필기시험을 보러 다니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농어촌공사에 면접을 보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합격하였습니다. 면접과 졸업논문 발표준비를 하며 많이 바쁘기도 했지만 주말아침을 활용하여 두 가지 모두를 준비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기업에 제출 했던 내용)

1. 우리 공사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하고, 본인의 역량 및 강점을 공사의 4가지 인재상(전문성, 소통능력, 고객감동, 혁신성)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세요.

저는 토양환경실�험실에서 3년간 수행한 토양연구와 출장을 통해 간척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하굿둑과 방조제를 보며 농민들에게 농지제공과 농업용수 확보를 책임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력을 느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농공학회에서 많은 경험을 하며 목표를 세우고 농업토목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농업 시설물 설계 관리의 기초인 여러 역학 과목과 농어촌 개발의 시작인 농업 인프라 설계, 농촌 토지 이용계획 등을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 HEC-RAS와 GIS프로그램을 통해 토목공학적 데이터 분석과 DND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변수에 따른 작물 생장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역량을 쌓는 경험을 통해 대단위 농지의 설계와 농업시설물 유지관리업무에 대처할 수 있으며 지역 현황 분석을 현장에서 수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책임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간척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사회에 든든한 밥값을 하는 일원이 되고자 합니다.

2. 지원분야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인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세요.

새로운 지역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정책과 지역 특성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전문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간척지의 작물 재배 현황과 토양의 특성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사업 전 국가통계포털과 간척지 관련 논문을 통한 자료조사를 시작으로 저의 소임을 수행했습니다. 간척지 현장에서 코어를 이용한 토양 시료 채취를 통해 토양의 공극률, 포화도, 함수비 측정을 배웠습니다. 이외에도 체 가름 시험을 통한 흙의 공학적 분석과 토양의 염농도 측정까지 수행하며 간척지 토양의 다양한 활용방안과 토양분석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간척지

작물 재배현황 조사를 하며 벼 이외에 다양한 작물 재배 현황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3년간 간척지연구조사사업을 수행하며 조사 방법의 노하우축적과 매뉴얼 작성에 기여하였고 간척지 농민분들에게 이론으로 배울 수 없는 농업에 대한 지식을 보고서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3.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견이 다른 구성원과 소통하여 성공적으로 협업을 이루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주세요.

지역아동센터에서 매주 2회 학습지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학습지도의 목표인 학업성취도 향상과 동기부여 방안을 구성원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다른 구성원이 기존의 문제풀이식 학습지도 방안을 제시했으나 저는 학습지도 사례와 관련 정보를 조사하며 기존 방식과 다른 야외 체험 활동을 통해 동기부여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견 조율을 위해 상대방을 알아보려고 노력하였고 저는 상대방이 더운 날씨로 인해 야외활동을 힘들어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습 성취도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상하기 위해 절충안을 준비하여 상대방에게 실내 체험활동을 제안하였고 함께 밤새 학습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구성원들이 자신의 전공에 관련된 실험과 활동을(미니화산 실험, 전기회로 실험, 세팍타크로 공 만들기 등) 계획하여 아이들에게 동기부여 하는 목적으로 학습지도를 수행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활동에 긍정적이었으며 학습 집중도가 상승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4. 우리 공사의 주요 사업인 농어업분야 관련 이슈 중 관심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해당 이슈에 대해 본인의 의견과 공사의 역할에 대해 기술해주세요.

1990년대 이후 쌀 소비가 줄어들며 쌀 재고량이 늘어 벼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부 농민들은 쌀 생산을 포기하고 가축용 작물을 재배하고 과거에 쌀생산조정제도와 같은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줄어든 쌀 소비에 대비하여 농어촌공사는 간척지에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사업을 통해 간척지 농지의 다각적인 사용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방안으로 고부가가치 작물을 간척지 농지에 재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척지 토양은 염농도가 높아 모든 작물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척지마다 도로망 조성 상태 및 복토여부 등 조건이 모두 상이합니다. 이런 이유로 농어촌공사는 여러 지역적 특성을 연구하여 지역에 특화된 고부가가치 작물보급과 최적화된 영농방법을 제공하는 데 힘써 대한민국의 농업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Io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농업기술단지 조성을 통해 간척지를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사지원경험

1. 자소서, NCS 후기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으로 토목직렬의 채용인원이 급감했습니다.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남부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다양한 곳에 지원을 하여 대부분 자소서는 통과하였지만 주변 친구들은 자소서에서부터 탈락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자소서에도 충분히 정성을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NCS는 한국남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농어촌공사 3군데에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한국남부발전과 한국농어촌공사의 NCS는 쉬운 편에 속했습니다. 또한 문제를 푸는 도중 오류가 있는 문제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공문제는 토목기사 문제수준 이상으로 아주 어려운 편에 속했습니다. 7급 공무원 수준으로 준비를 하면 쉽게 합격하실 것 같습니다. 반대로 LH의 NCS는 두 공기업보다 난이도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가장 적합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공문제는 기사수준 보다 쉬운 난이도였습니다. 전년도(2019년도)와 다르게 아주 쉽게 났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시험은 서울, 대전에서 보았습니다. 하루 전에 올라가셔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특히 농업수리학(관개배수학)이라는 과목을 시험보기 때문에 관련강의를 듣지 못한 분은 전공서적 및 농어촌공사 준비 카페에서 요약자료를 다운받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CS는 해커스 기본서를 인강과 함께 3회독을 하였습니다. 이후 신헌, 하주웅 등 수리해결, 문제해결 및 자원관리 문제집을 풀어 실전 감각을 익히고 언어부분은 매삼비를 풀었습니다. 매삼비가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NCS전용 언어 문제집을 풀며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서를 끝낸 이후 NCS스터디에 들어가 매주 봉투모의고사를 풀며 감각을 유지했습니다.

NCS스터디를 통해 스터디원들과 풀이방법을 공유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팁을 익힐 수 있어 스터디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주말 틀린 문제를 반복하여 풀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만 복습하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후 토목전공 문제는 10개년 기사문제와 개념정리와 이학민 응용역학, 7급 수리학 문제를 풀며 전공에 대비했습니다.

2. 면접후기

첫 번째 보았던 면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1차 개인면접 1번으로 당락이 결정되었습니다. 장소는 강남코엑스에서 보았습니다. 면접은 자소서 관련 질문, 개인 인성질문, 전공질문이 있었습니다. 자소서 질문이나 전공질문은 평이한 난이도였지만 인성질문은 아주 압박질문이었습니다. 기억하기로 4번 정도 꼬리질문이 있었습니다.(예. 회사에 끈대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강남 코엑스가 복잡하니 미리 지도를 보며 전날 늦지 않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국농어촌공사 면접은 한날에 PT면접과 다대다 인성면접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토의 면접은 취소되었습니다. PT면접의 질문은 평이한 수준이었고 작성시간은 10분이었습니다. 이후 면접실로 들어가 발표를 3분가량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자소서 전공 관련 질문과 전공 관련 지식질문 이후에 발표내용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다대다 인성면접은 심한 압박질문과 1분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고 또한 예상치 못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당황하는 모습을 보려는 것 같습니다.

면접 준비는 면접스터디를 조직하거나 들어가서 준비하였습니다. 면접발표가 공지되면 전남대학교 커뮤니티에 바로 모집인원을 뽑는 글이 올라오니 재빠르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된다면 직렬이 겹치거나 인원이 다 버려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양한 직렬사람들과 조직하고 모의면접을 진행하던지 자료를 조사하고 공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초가 부족하거나 면접이 처음이신 분은 면접학원에 등록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기본태도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후문과 정문에 학원이 있으며 연락을 하고 수강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가격은 대략 60만원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면접에서 많이 긴장하여 떨어졌습니다. 우황청심환을 먹어도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면접을 보았을 때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마음을 유지하고 면접관님들도 집에 가면 누워서 맥주마시는 한 가정의 아버지,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나만큼 열심히 한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면접장을 부수고 입사하겠다는 마인드 컨트롤 하고 면접장에 들어갔더니 연습 때보다 더 자신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